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오후 (3부) 2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1월 17일 (제716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심은대로 거둔다

추수감사절이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내가 주의 종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황지에서 목회를 하시던 토레이 신부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땅에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절대 팥이 나지 않고,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나지 않는다는 누구나 아는 단순한 진리였다. 또한 콩을 심어놓고 가만 놔두는 것보다 김삼도 매고 북을 돌아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역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내 목회여정에 큰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좋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무성하도록, 잡초가 나지 않도록 손질하고 신경 썼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점차 30배, 60배, 100배, 더는 천 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당신이 수확한 것은 무엇인지, 얼마나 수확했는지 한 번 생각해보면 한다. 당신이 수확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심은 것이며, 그 양은 당신의 노력에 정비례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다. 혹 가시나무를 수확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시나무를 심은 것이고, 혹 배추를 수확했지만 품질이 좋지 않고, 양이 적다면 그건 당신의 손질이 뜸했다는 증거다. 절대 땅이 거짓말을 하지 않듯, 인생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제단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거든, 또 당신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거든 좋은 것을 심고, 열심히 가꾸라.

지금 너의 생각이 곧 너의 미래다

지난 6월, 대구예수중심교회 수요일예배를 성공리에 마친 목사님은 제자들과 함께 부산 벡스코(BEXCO)를 방문하셨다. 이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심어주시려는 목사님의 생각에서였다. 그러한 목사님의 적극적인 독려가 오늘의 부산 전도집회를 낳은 것이다.

부산은 지난 90년대, 성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도시였다. 목사님의 이사벨강당, 구택체육관, 사직체육관 집회 등은 가히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다. 그 벅찬 기억들을 안고, 목사님은 부산 및 경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병을 고침 받겠다는 생각에 혈류중 결린 여인의 혈투근원이 말랐고(막 5:25-34), 눈을 뜨고 말겠다는 소경 바디매오의 생각이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께 달려 나가 눈을 뗐으며(막 10:46-52),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고 말겠다는 생각이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는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 중풍 병에서 놓임 받았고(막 2:3-12),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삭개오의 생각이 뽕나무에 오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눅 19:2-6).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

결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심었으면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를 따는 자는 심은 자가 아니라 바로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우제를 비가 올 때까지 지내며 치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러할진대 오늘날 믿는 자들이 너무 조금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씨를 심고 자꾸 헤집어보니 그 씨가 어찌 자랄 수 있었습니까? 말라 죽거나 짐승들이 쪼아 먹고 말테니 열매를 얻기란 요원한 일이지요. 씨를 심었으면 잎이 나며 꽃



부산 전도집회(2013년 11월 12일, 벡스코 컨벤션홀)

남권에 다시 한 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 땅을 밟았노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6장 19절 통하여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겠다는 생각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뉴욕의 맨해튼도 두바이도 인간의 생각에 의해 건설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단 연컨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있었기에 무서운 결과로

까? 28년 전, 칠산리에서 단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며 세계를 교구 삼겠다는 내 생각의 결과, 오늘날 전 세계 70개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낳은 것입니다. 사과 속의 씨는 초등학교생이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씨 속의 사과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저 수천수만 개의 사과를 결실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28년 전, 하나의 씨를 믿음으로 심은 것이 담장을 넘고 전국과 세계를 넘어 오늘의 평강예수전도단과 세계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으로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씨를 심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를 키우사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한

이 피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잘 가꾸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미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예배 후 모든 병자들을 단으로 불러 올려 일일이 안수해주셨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손 마름병이 고침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 이제 금번 대구와 부산 집회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이 더욱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로이 도전하고 성취하는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손 마름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다.



부산 벡스코(BEXCO) 전경



단에 올라온 모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2:11)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빛과 어두움의 차이이다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처음 접한 성경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굶기시라’ 하는 믿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끼니가 없을 만큼 가난했었습니다.

배를 풀면 그는 화가 나서 담임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성경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 리가 있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어떤 새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뭇가지에 쉬고 있는 새가 아니라 먹은 것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가 부지런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부지런한 사람은 만물을 황금으로 만들고, 무형의 시간까지도 황금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부귀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 참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들의 공통점은 다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고, 야곱 역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왔나이다”(창31:40).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음을 시인했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왕상19:10),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다. “저가 열두 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왕 상 19:19).



19:19).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

상하기 위해 이른 새

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

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시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침상에 구르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부지런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

습니다. 둘 다 즉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안 움직인 겁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자고로 게으른 자들의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핑계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쫓기겠다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매일 시작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매일 ‘배가 아파서, 버스가 늦게 와서, 시간을 잘못 봐서’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원래 뜻은 ‘몰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 마디

로

게으름

은 무책임

입니다. 무책임

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처녀시절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여자들도 결혼하면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밥해 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가장이 되면 새벽부터 뛰지 않습니까? 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제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다 책임감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단의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 살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태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귀신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실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한 젊은 귀신이 안건을 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귀신은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수만

으로 늘어났다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귀신은 “그렇다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귀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모두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방법이라네.” 그

피부리며 게으른 천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낫다

때 다른 귀신이 피를 하나 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는 게으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름=더러움=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하면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매일 해외집회를 갖는 것은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를 채찍질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지금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잃은 양떼로 인하여 나중에 예수님께 야단맞을 것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 27:23).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고,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숨이 턱에 닿게 뛰어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영·혼·육에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을 부식시키는 독소다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충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한 마디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한 것은 만고의 진리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사람은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좀 마음을 넓히자

가을이 깊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을이 너무 짧아졌다고. 이제 이리다가는 우리 나라에 여름과 겨울만 남겠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거기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 큰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지방 집회 관계로 고속도로 주변에 펼쳐진 가을빛 산야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가을은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를 물들이며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빛깔과 조화를 뽐내며 말이다.' 하늘은 우리 머리 위로 언제나 파랗게 가득하건만, 하루 동안 그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보았는가?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며 여러 빛깔로 제 의무를 다하고 있건만, 괜히 자신들의 삶에 바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이리저리러쿭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 주변을 둘러보기 바란다. 길가들 노랗게 물들이고 바람과 함께 반짝이며 떨어지는 은행잎, 울긋불긋 고운 빛깔을 뽐내는 가로수, 그리고 그 위에 그 어느 때보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게 떠있는 하늘, 우리 주변에도, 아니 바로 내 옆에도 가을은 그렇게 손짓하고 있다. 어디 이 아름다운 계절뿐인가? 우리 옆에는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벗들, 직장 동료들,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땅에, 이 시간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좀 다잡지 헛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긴 호흡과 함께 주변을 돌아보기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부모,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늘 함께 가까이 있기에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건만, 사람들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좁아져서 억압 속에 살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보듬고 사랑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내 곁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스쳐지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께 자주 듣는 말이다.

"후회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은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저것거리의 농이 아니다. 깊은 인생의 통찰에서 나온 평범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가을은 또 이렇게 가고 있다. 추운 겨울이 오고, 또 2013년도 그렇게 저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을 넓혀서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2-13).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협력하여 이루는 선(善)

어느 나그네가 개와 당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나그네는 헛간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나그네가 램프를 켜고 간단히 허기를 때운 후에 짍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에 세게 불어서 그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불이 꺼진 김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는 동안에 여우가 와서 개와 당나귀를 묶어 죽여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나그네는 죽은 개와 당나귀를 보고 아수라했지만, 할 수 없이 혼자 걸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전날 밤에 산적들이 나타나 집을 파괴하고 물건을 다 훔쳐간 것은 물론이고, 사람까지 다 죽이고 간 것입니다.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산적들이 자기가 있는 곳도 발견했을 것이고, 개와 당나귀가 살아 있었다면 개가 짍고, 당나귀

가 소란을 피웠을 테니 역시 산적에게 발견되어 개죽음을 당할 뻔 했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격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과정과 때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 삶에 램프 불이 꺼졌습니까? 당신이 기르던 개와 당나귀가 죽었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에게 주시려는 과정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예수중심편집실



모든 것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NewYork Report::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뉴욕은 참으로 풍요로운 도시다. 도시는 화려함으로 가득하고 한 해에 대한민국 인구수만큼의 사람들이 관광을 오며, 정치, 금융, 경제, 문화 등 모든 것들이 이곳으로부터 이슈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야말로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이슈들이 이곳에서 각축전을 벌이는데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맨해튼 중에서도 중심가인 타임스퀘어에서는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무신론자, 뉴에이지, 사탄 숭배자 등 다양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사상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이번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임스퀘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신론과

기독교 간의 광고 전쟁이다. 타임스퀘어는 밤에도 어둡지 않다. 형형색색의 전광판들이 너도나도 불을 밝히며 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상업광고들이 반짝이는 한편에서 영적 광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한 무신론자단체에서는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 여성의 말을 인용하여 "탐소사, 신이 없네요!"라는 광고를 전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맨해튼 한 복판에 내보내고 있다. 또한 같은 전광판에 'Answers in Genesis(창세기에 있는 정답)'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단체에서는 "창세기 1장의 답"이라는 광고에서 "무신론자 친구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틀렸어요."라는 문구를 내보내며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이 광고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뉴욕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전체 크리스천의 수는 2% 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소수가 되어버린 크리스천에게 배타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

다.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복음이 활짝 꽃피우게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우리는 미국에 믿음의 빛을 지고 있는 나라이다.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그들이 현재는 침체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나라로 일구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서방세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들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진 복음의 빛을 갚을 차례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부흥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기를 원한다.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여 왔던 그들처럼, 이곳에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힘을 보태주기를 원한다.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유럽과 세계의 중심단계 다양한 종교들과 뉴에이지,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며 기독교를 몰아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부디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이 드넓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대서양을 향해하던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 여객선 안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어수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며, 얼굴에 잔잔한 미소까지 띠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바다는 잔잔해졌고, 한 고비를 넘긴 여객선의 선장이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도 그렇게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노부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이 항구에 살고 있고, 다른 아이는 저 천국에 있지요. 나는 배가 풍랑에 휩쓸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테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한다면 그렇게도 보고 싶던 작은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흔히들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추수감사절은 축복한 겨울과 낫은 땅, 갖은 생활의 질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감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풍성한 수확에만 감사하시겠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게 하심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눈물로 뿌리는 씨앗

호주에서는 제이너(Janner)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화제다. 이 노인은 젊은 시절 해군의 신분으로 방랑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 후 그는 하루에 10명씩 전도하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조지아에서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날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라는 세 마디를 40년간 외쳤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죽음이 멀지 않을 때쯤, 그는 자신의 전도가 '열매 없는 열실'이었다며 절망하고 있었다. 예나하면 자신에게 와서 당시 덕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한 목사가 찾아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냈다. 이 목사는 3년 전 한 성도가 '조지아에서 자신을 전도한 노인 덕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같은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으며, 그 인원이 자그마치 146,000명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제이너는

그제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볼 수 있겠다'고 고백했고, 2주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아예 씨뿌리기를 포기한다. 또한 자신만 뿌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한술 더 떠 다른 사람들이 뿌리는 씨앗을 비웃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거나 '꼭 저렇게 예수를 전해야 하나?' 했다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며 비판했다면 역시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세 번 부인했으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바칠만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신가? 아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결

같이 순교의 길을 걷은 것은 물론이요,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교자의 수가 7천 3백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한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순교자가 훨씬 많을 것이니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순교자들이 바로 그분의 열매이다.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도 마찬가지다. 집사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교했으니 그의 열매가 있을지 싶지만, 그의 죽음에 훗날 바울의 회심까지 이어져 유럽과 아시아 선교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 작은 씨앗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5천만 명 중 나 한 사람에게도 전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당신의 방법으로 키우시고 입혀서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한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작은 씨앗을 뿌려보자!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공산 치하의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서로 의지하며 살던 두 형제가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홍콩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형제의 사랑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동생은 형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 조직원의 밀고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동생은 자신을 밀고한 사람들과

다투던 중에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도망쳐온 동생은 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틈도 없이 피 묻은 칼과 옷을 벗어 던진 채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위험에 빠진 것을 직감한 형은 자신의 옷을 벗고는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입고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때 경찰이 들이닥쳐 형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형이 동생을 위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형을 찾아온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자수하였으나 동생은 풀려났습니다. 이미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하여 죄 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2,000여 년 전 이스

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최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수능 시험을 끝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이제 적성 검사와 논술, 실기와 면접 준비 등이 남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남은 시험들도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기록하고 대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대학입시제도와 그에 따르는 입시전략을 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그들에게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부터는 대학 선택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고,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있게 될 것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봄까지 길게는 4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시험이 끝난 뒤, 넘치는 시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해마다 했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본다.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 이 기간 동안 영어회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업과 일상에 지치고 피폐해진 심신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3이라는 밀폐된 시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은 자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면서 외면했던 독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 것을 추천한다. 이 넓고 바쁜 세상을 일일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힘들다. 앞시간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독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을뿐더러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에 주어지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넉넉한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본다면, 이번엔 주어지는 이 시간은 생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의 시간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타인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주어지는 여유로운 시간동안 계획과 실천의 학습시간으로 삼아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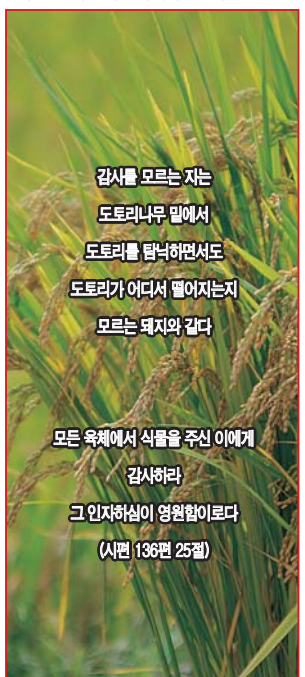
Q&A

Q: 몇 해 전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있던 중,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실업조를 하면 복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실업조를 드렸는데, 사업이 현상유지는 하고 있지만 소원하는 만큼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내가 형편이 어려워니 실업조 대신 감사헌금만 드리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 한 구절 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실업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듯이, 성도님께서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업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실업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그 금액인데 그것을 드리려고 하면 전부를 다 드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불경기 속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126:6).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하더라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는 돼지와 같다